제7장 절약하고 검소하게 하라

도 입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십 년 전만해도 절약과 저축을 무척 강조하였다. 그 때는 절약과 검소가 미덕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자 절약보다는 소비가 미덕이 되었다. 그래서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자원 곧 물이나 에너지는 절약이 미덕이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생산력이 낙후되고 그나마 1차 산업인 농업에 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물자가 넉넉하지 못했다. 그래서 절약과 검소가 미덕이었다. 특히 왕이나 관리 등의 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했고, 또 일부 사대부는 청빈하게 살기도 했다.

이 장은 율곡 선생이 선조임금에게 절약과 검소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내용이 왕실을 중심으로 기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절약 정신은 오늘날도 필요한 미덕이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다량의 에너지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더구나 그 자원은 일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에서 독점하다시피 하여 남용하고 있는데, 인류의 생존을 위해 우리 스스로 남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절약도 지도자가 앞장서면 더욱 큰 효과를 볼 것이다.

본 문

[율곡의 풀이]

가정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이미 앞에서 말했지만, 절약하고 검소하게 하는 것이 가장 임금의 미덕이 된다.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우(禹)임금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다. 자기가 먹는 음식은 간소하였으나 조상신에게는 효성을 다하였고, 평소의 의복은 거칠었으나 종묘와 조정의 예식에서 입는 의복은 아름답게 하였으며, 궁전은 허술하였으나 농사에 필요한 도랑에는 힘을 다하였다. 그 때문에 우임금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이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풍족하게 하거나 검소하게 하는 것을 각각 마땅한 데에 따라서 적합하게 하였으므로 비난할게 없다. 그러므로 두 번이나 말하여 깊이 찬미하였다."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자기 자신을 받드는 일에 대하여는 소박하게 하면서 백성들을 위하는 일에는 부지런히 힘썼으며, 종묘와 조정에서 입는 예복은 아름답게 꾸몄으니, 이는 천하를 사사로운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어찌 비난할 만한 틈이 있겠는가?"

[서경]

주공(周公)이 말하였다. "문왕(文王)은 검소한 옷을 입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공과 백성을 기르는 공을 이룩하였다."

〈주석〉 채씨(蔡氏)가 말하였다. "문왕은 의복을 잘 입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성품이었고, 오로지 백성들을 편안히 하고 기르는 데만 그 뜻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검소한 옷이라고 한 것은 하나의 단서를 들어 말한 것이다 궁실과 음식 등도 소박하게 하였다는 것을 이것으로써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서경]

이윤(伊尹)이 말하였다. "너의 검소한 덕을 삼가 오로지 장래를 위하는 영원한 계획을 생각하라."

〈주석〉 진씨가 말하였다. "검소하면 마음이 작아 생각하는 것이 원대해지고, 사치하면 마음이 커서 계책이 소홀해지는 것이다."

[율곡의 풀이]

검소하다는 것은 공손한 덕이며, 사치라는 것은 큰 악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검소해 진다면 마음이 항상 방탕하지 아니하여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 적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치하면 곧 마음이 항상 바깥으로 치달아 날마다 방자하게 되어 만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집 안에서 자손의 예를 들어 말한다면 선대의 조상이 부지런히 일해서 산업을 이룩한 것을 자손이 검소하게 절약하여 간직하는 이는 여

러 대에 전하여도 가업이 쇠퇴하지 않으나, 한 번 사치스럽고 방종한 사람이 나오면 방자스럽게 향락을 일삼아 여러 해를 두고 쌓아온 재물을 하루아침에 탕진해 버리게 되는 것이다.

한 집안의 흥하고 패하는 것은 그 관련되는 바가 적은 것이나, 국가의 경우라면 조종(祖宗)이 쌓아올린 공은 한 집안을 일으키는데 비유할 수 없는 것이며, 창고에 저장된 재물은 하나라도 백성의 피와 땀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니 어찌 감히 망령되게 사치를 일삼아서 하늘이 내린 재물을 낭비하고 백성들의 힘을 곤궁하게 하며, 선조께서 이룩한 왕업을 패망토록 하겠는가?

해 설

본문의 내용들은 중국 고대의 모범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하였다. 왕이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사사로이 하지 않고 백성들로부터 나왔으니 절약하고 검소하게 하여 공적인 일에 써야 한다는 생각이다. 만약 임금이 사치하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왕업(王業)을 패망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날의 문제로 좀 더 확대 해석하면 나라의 고위공직자는 물론이요 일반 공무원도 자기 직무를 통해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봉급수준을 보아 그것만으로 결코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있거나 배우자가 사업을 하여 부를 축적한 경우는 별도로 하더라도, 다른 일 없이 오직 공직생활을 통해 부자가 될 수도 없지만 꿈꾸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생각해 볼 문제

1. 옛날 임금들 가운데는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든 흉년이 되면 반찬 가짓수를 줄여서 간단한 식사를 하기도 했다. 이런 일은 본문 [서경의 주석]에서 "문왕은 의복을 잘 입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성품이었고, 오로지 백성들을 편안히 하고 기르는 데만 그 뜻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검소한 옷이라고 한 것은 하나의 단서를 들어 말한 것이다 궁실과 음식 등도 소박하게 하였다는 것을 이것으로써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말과 관계가 된다. 이런 전통은 아직도 내려오고 있다. 국가에 재난이 있거나 국민들의 생활에 위협이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고위 공직자가 조심하고 사치와 향락을 금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고위 공직자가 스스로 금해야 하는 사치와 향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 율곡 선생은 『격몽요결』에서 청빈(淸貧)한 삶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는 가난하여 서울에 집도 없었다고 전한다. 청빈한 삶은 청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 수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시 학문의 목적이 성인(聖人)이 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스스로 청빈한 삶을 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풍요롭게 사는 것을 개인의 당당한 권리로 알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욕망도 가능한 채워야 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각자의 욕망을 경쟁적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빈부의 차이나 갈등이 존재한다. 재화(財貨)는 한정되어 있고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롭게 되었다고 해도 문제는 뒤 따른다. 풍요로우면 정신이 게으르고 나태하며 타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뜻에서 과거의 청빈한 삶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 먹고 살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만 소유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내게 필요 이상의 재물은 정신과 영혼의 타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성서 속의 예수의 말은 쓸데없는 공허한 말일지도 모른다. 인생을 보람 있고 만족스럽게 사는 데에 청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해 보시오.

3.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통사상이나 철학은 대개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남녀를 엄격히 분별하는 것과 검소와 절약을 미덕으로 삼는 것도 모두 그것과 관계가 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욕망을 억제하여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만 한다면,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 유행 따라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굴러 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현대 대중문화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하나의 모순이 등장한다. 개인의 삶에서 가령 도덕 교과서에서 검소와 절약을 미덕으로 권장하면서도 사회·정치적으로는 소비를 권장한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검소와 절약이 미덕인지 소비가 미덕인지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4. 사람이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다보면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사치와 낭비는 욕망의 실현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인간이 너무 금욕적이면 타협 불가능한 독불장군이 되기 쉽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게다가 자신의 생각만 옳고 남이 그르다는 태도를 지니기 쉽다.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욕망을 채워도 될까? 반대로 어느 선까지 욕망을 막아야 할까?

한문 익히기

부 검 즉 심 소 이 위 려 자 원 치 즉 심 대 이 위 모 자 소
夫儉則心小하여 而爲慮者遠하나 侈則心大하여 而爲謨者疏하니라
(『서경의 진씨 주석』).

한자 풀이와 해설

夫 : 대저/儉 : 검소하다/則 : 곧/心 : 마음/小 : 작다/而 :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爲 : 되다, 하다/者 : ~하는 것/遠 : 멀다/侈 : 사치하다/大 : 크다/謨 : 꾀, 계획하다/疏 : 서투르다, 소홀하다

*夫 : 발어사로서 대저 또는 대체로 보아의 뜻임. 경우에 따라 뜻을 생략할 수 있음

*~則~ : 조건을 나타내며 ~하면 ~하다의 뜻

*~者 : ~하는 것으로 곧 爲慮者는 직역하면 '염려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뜻함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치심(侈心) : 사치를 좋아하는 마음

*원려(遠慮) : 앞으로 올 일을 헤아리는 깊은 생각 또는 멀리 내다 봄

해석

검소하면 마음이 작아 생각하는 것이 원대해지고, 사치하면 마음이 커서 계책이 소홀해지는 것이다.

府庫所藏은 秋毫라도 莫非生民之膏血이라(『성학집요』).

한자 풀이와 해설

府 : 곳집, 관청/庫 : 곳집, 곳간/所 : 바, ~것/藏 : 저장하다, 간직하다/秋 : 가을/毫 : 가는 털/莫 : 없다/非 : 아니다/生 : 살다, 살아있다/民 : 백성/之 : 어조사/膏 : 살찌다, 지방/血 : 피

*莫非 : ~아님이 없다의 뜻으로 이중 부정을 나타내는 말

*所+동사 : 영어의 to+동사의 부정사처럼 명사형을 만듦. 所藏은 저장한 것 또는 저장된 것

*之 : ~의 뜻임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부고(府庫) : 재물을 모아두는 창고

*추호(秋毫) : 가을철 가늘어진 짐승의 털이란 뜻으로 몹시 적음을 비유한 말

*생민(生民) : 살아있는 백성이란 뜻으로 일반 백성을 말함

*고혈(膏血) : 사람의 기름과 피라는 뜻으로 힘들게 생산한 재물이라는 말

해석

(나라의) 창고에 저장된 재물은 하나라도 백성의 피와 땀이 아닌 것이 없다.